



# 한·일 전통춤 한무대 선다

### 월드컵 성공기원 '神舞Ⅲ' 공연 28~29일



일본의 국민무용가 후지마 토요타로

#### 아리랑·사쿠라 주제 앙국 춤사위 겨뤘

문을 연다. 이어 가부키를 입은 일본 국민 무용가 후지마 토요타로가 담무로 일본 전통춤을 춘다.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피날레다. 일본인 작곡가 이데타 케이조(헤이세이 음대 학장)의 웅장하고 감미로운 '일백년' 연주곡 '연무(連舞)'에 맞춰 한국전통민요 '아리랑'과 일본 전통민요 '사쿠라'를 주제로 한 앙

경기도당굿을 소재로 한 창작 무용 '신무Ⅲ'를 선보이는 임이조 남원시립국악단장

전자건반악기 일렉트릭의 아름다운 화음이 곁들여진 한·일 전통춤이 한 무대에서 만난다.

한국전통춤연구회와 일본의 헤이세이 음대는 '2002 한·일 월드컵'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무용 기획공연 '신무(神舞Ⅲ)'를 28~29일 한전아트센터에서 마련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 전통무용가 임이조(남원시립국악단장)씨가 경기

도당굿을 소재로 창작한 무용을, 일본에서는 국민무용가 후지마 토요타로가 일본 전통춤을 함께 선보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우선 임이조 단장이 경기도당굿의 화려한 장단을 쳐올려 신당과 같이 무대를 정화시키고, 북소리로 뜻(義)을 알리는 의식을 치르는 것으로

## 새 형태 사자문 수막새 기와 출토

### 태백 본적사지서, 경주 비 지역선 처음



경원도 태백시 황지동 본적사터에서 출토된 사자문 수막새 기와

경원도 태백시 황지동 본적사터에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자 문양 수막새 기와가 출토됐다. 경주 이외의 지역에서 사자문 기와가 출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시골조사

를 맡고 있는 강원문화재연구소 측은 12일 밝혔다.

이번에 출토된 사자문 수막새 기와는 두께 1.1~1.9cm에 크기가 각각 14.7cm, 14.3cm인 2점이 다. 2점 모두 사자가 앉아 있는 형상을 하고 있으며, 사자의 특징인 갈기와 다리, 발톱과 얼굴이 사실적으로 묘사돼 있다.

이전까지 국내에서 출토된 사자문 기와는 사천왕사, 황룡사, 팔공사 등 경주 지역에서 출토된 것들로 연화문와 당(瓦當) 중앙에 정면을 보고 있는 사자의 머리와 몸통, 갈기를 양각한 것이 주종을 이룬다. 머리를 간략하게 표현하고, 견장한 다리와 몸통의

볼륨감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번에 출토된 2점은 머리를 볼 것 아니라 얼굴 형상이 세부적으로 묘사돼 있어 전혀 새로운 형태다.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본적사 터에서는 이와 함께 통일신라시대 때 경주에서 유행했던 귀면와와 보상당초문 암막새 기와, 연화문 연목와 등 다양한 문양의 기와가 출토됐다.

권형진 기자 jym@buddhapia.com

국의 전통춤이 서로 만나 춤사위를 겨루며 무대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번 임이조 단장의 공연처럼 5박, 15박 같은 어려운 장단이 특징인 전통 경기도당굿이 전통춤으로 무대화된 역사는 30여년. 서울·경기 전통춤의 명인이었던 이 이동안 선생이 조선시대 재민청의 교과 과정을 통해 이 춤을 원형에 가깝게 후대에 전했다. 바로 임 단장의 작품은 대형무대에 맞게 이를 기초로 한 창작물이다.

특히 임이조 단장은 '신무Ⅲ'에 앞서 스승인 이매방 선생으로부터 전수 받은 춤들로 1부 무대를 꾸민다. 스승으로부터 배운 승무와 자신의 오랜 트레이드 마크인 '한량무'는 직접 자신이 춤사위를 출납하며, 삼풀이춤은 제자들을 통해 선보인다. 023461-5825

## 중세음악극 '고려의 아침'

월드컵기념, 88마당에서



서울예술단이 2002 월드컵을 기념해 야의 중세음악극 '고려의 아침'(사건)을 25일부터 30일까지 을림극공연 88마당 야외무대에서 공연한다. 총 출연진 141명, 수석원대의 제작비를 들여 3년간 준비한 '고려의 아침'은 팔만대장경을 만들어 외딴의 침략을 이겨내려 했던 고려인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맺음이 다닐 수 있는 문길을 조성하는가 하면 인공담과 불타는 장경각 등 집단 무대 장치를 마련했다. 또 공연중에 배우들과 시민들이 함께 평화를 기원하는 연등 띄우기 행사도 준비했다. 진짜 불화살이 객석위로 날고 매캐한 연기가 관객들 눈까지 찌르는 전쟁 장면은 흥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02523-0961



목조문수보살 및 시자상(1273년작,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

## 日 국보급 문화재 300점 한국에 7월 14일까지 중앙박물관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를 맞아 일본의 국보급 문화재 300여 점이 한국을 찾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이 7월 14일까지 개최하는 '일본 미술 명품전'은 일본의 국보 24점과 중요문화재(한국의 '보물'에 해당) 104점 등 모두 189건 298점이 전시되는 자리다. 일본의 문화재 해의 전시 사상 최대 규모로, 전시품 대부분이 한국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것들이다. 회화, 조각, 공예품, 고문헌, 고고자

료 등 5개 분야로 나눠 전시되는 특별전은 우리 문화와 일본 문화가 어떤 점에서 달고, 다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주요 출품작은 기원전 1세기 한반도에서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방울(국보), 12세기 초반 일본의 귀족적 미의식을 잘 드러낸 제석현상(중요문화재, 일본적 미의식이 잘 드러난 13세기 후반 목조문수보살 및 시자상(중요문화재, 일본서기 22·24권(국보) 등이다. 권형진 기자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일본 여행을 하고 돌아왔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본 것은 고토 선종(高藤 宗) 사촌의 정원들이다. 그 중에서 특히 료안지(龍安寺)의 가래산수(枯山水)식 정원이 인상적이었다. 이 양식은 주로 선종 사찰 내 방장실의 앞뜰을 꾸미는 것으로 선적 세계관을 압축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인 정원은 달리 물과 나무를 배제하고 돌과 가는 자갈로 되어 있는데 모래처럼 고운 흰 자갈밭은 바다우주를, 이가 덮인 돌은 섬(섬)을 상징한다. 방장실 마루 바닥에 앉아 앞에 펼쳐진 석정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치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흰 자갈밭이 서서히 비에 젖어 들어가는 모습은 모든 선견정을 배제한 절대적인 즉물(卽物)로 다가왔다. 완벽한 고요와 정지. 그 순간 마치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난 것처럼, 정원을 처음 만든 스님의 심성이 얼핏 느껴지고 이것이 곧 일본 문화의 원형적 이미지라는 느낌이 들었다.

흰 자갈밭은 가로로 길게 가래질이 되어 있다. 그리고 돌이 놓인 주변에는 마치 수면에 돌맹이가 떨어져 물결이 퍼져 가는 것처럼 돌맹이 배열이 나 있다. 내게는 그 돌이 곧이 정원이며, 그 돌맹이는 이곳의 양식이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이해되었다. 여행 중에 들린 각 지방의 다실이나 식당의 정원은 암암리에 선종적 미의의 원형인 이곳을 모방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이다. 교육이나 사회제도가 할 것 없이 하나의 시스템이 정착되면 곧 전국으로 퍼져나간다. 용안사의 석정은 일본 정원은 아니라 기타 일본 문화의 원형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일본 도시락의 모양이 그대로 이 정원의 축소판이며, 그 이미지는 꽃꽂이나 하이쿠(俳句) 등 다른 일본 문화에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어느 고승에 의해 창건된 하나의 양식이 전 국민에게 전해진다는 것은 놀라운 현상이다.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아기가기하게 꾸며나가는 지극히 일본적인 생활양식에서 '하나 속에 전체가 담기는(一即一切)' 화엄적 세계관을 엿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일까? 정원 속에 우주를 축소해놓은 석정원을 본떠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공간이 아무리 작더라도 깔끔하게 정리하여 우주를 담아보려 노력한다는 것이 느껴졌다.

흔히 한국불교는 조사선이 강하고, 일본불교는 범부선이 강하다고 말한다. 뛰어난 조사가 많이 배출되어 온 것은 분명 자랑스런 전통이다. 하지만 일본 신도나 국민들이, 조사들이 도달한 구경각의 경지를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 차라리 선(禪)의 정신이 하나의 구체적인 생활문화로 전파되어, 일반인들도 생활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범부선이 현대사회에는 더 필요한 것 같다. 요즘 일반인들 사이에도 수행 열기가 뜨겁게 불고 있고, 월드컵을 맞이하여 템플스테이 사업도 실시되고 있다. 사찰을 찾아오는 일반인들에게 조사선의 지고한 경지보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선종의 생활문화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불문학평론가

**불교계 최초 교육인적자원부 인가**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개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불교와 사회복지·상담심리 등 관련분야의 학문을 연구하고 고수하는 전문대학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혜와 자비로서 개인적으로는 인격을 완성하고 사회 국가적으로는 불국토를 건설하는 사상입니다. 따라서 본교는 지혜의 개발과 자비심의 함양을 교육의 지표로 삼고, 민족과 인류사회의 이성을 실현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석사과정·연구과정 학생모집**

국내 유일의 불교전문대학원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9월 1일 개교합니다.

**I. 모집 학과 및 인원**

1. 모집학과: 불교학과·상담심리학과·사회복지학과  
2. 모집인원: 석사과정 - 50명, 연구과정 - 약 20명

**II. 지원자격**

1.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출신학과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III. 전형일정**

1. 원서교부 및 접수: 5.20 (월) - 6.05 (수) (www.sgsb.ac.kr)  
2. 전형일시: 6.8 (토) 10:00 3.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 입학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가능

**IV. 특 전**

1. 성적우수자 및 모범학생 등에게 장학금 또는 반액 장학금 지급  
2. 상임연구원 선발 각종 혜택 부여 3. 우수 졸업생 해외유학지원 가능  
4. 성적이 우수하고 인종이 훌륭한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학교법인 보문학원 산하 각급 학교 교사 또는 재단법인 불교인양원 산하 각 사찰 법사로 채용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거나 본교 홈페이지(www.sgsb.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석사과정·연구과정 외에 특별과정, 사회교육원도 운영 함.

본 대학원대학교의 운영매천으로는 학교법인 보문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 재산에서 조성되는 수익금 이외에도 재단법인 불교인양원 보광사 영각당(납골당)에서 조성되는 수익금이 있습니다.

서류제출 및 문의 \* 전 화 : (02) 808-3321, 6582, 6584, 6585 Fax (02) 808-6561 \* 주 소 : 153-0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8-2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회 원 모 집**

## 안양 보장사 영각당(납골당)

안양유원지 임구에 위치하여 서울에서 가장 깨끗하고 최고의 시설과 높은 신뢰를 자랑하는 재단법인 불교인양원 보장사 영각당을 존중하여 회원을 모집합니다.

(전철 1호선 관악역 도보 10분)

(장례에서 납골·49제까지 완벽한 서비스)

재단법인 불교인양원 보장사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교육부 인가 전문대학원)·보문중, 고등학교(대전)·인양시노인복지센터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자체주차장과 공용주차장 600대 주차가능)

031-471-3322, 02-808-3321  
www.bojangsa.co.kr

\* 영각당(납골당)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보문중, 고등학교(대전), 인양시노인복지센터의 운영비로 사용될 것입니다.